

I . 지역 주요경제일지 (2014.9월중)

< 울산시 >

9.15(월) ▷ 울산시, 싱가포르에 종합무역사절단 파견

- 울산시는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9개사로 구성된 종합무역사절단을 싱가포르에 파견
 - 조선·해양 기자재, 화학 및 화학 기자재 등의 업종으로 구성된 이번 사절단은 상담장에서 이뤄지는 상담과 개별적으로 직접 바이어사를 방문하는 복합방식으로 진행

22(월) ▷ 울산시장, 투자유치 대표단과 아시아 4개국 방문

- 울산시장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, UAE(두바이), 사우디(주베일), 베트남(칸호아) 등 아시아 4개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인솔하여 직접 방문
 - 울산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오일 허브의 글로벌 마케팅과 국내외 기업간 대규모 투자유치,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 및 투자인프라 시찰 등으로 진행

29(월) ▷ 울산시, 울산지역 산업발전계획 수립

- 울산광역시는 29일 창원시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2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'울산지역 산업발전계획'을 발표
 - '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'을 비전으로 하고 추진전략은 △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△신성장산업 육성 및 정착 △기간산업 융복합화 △기간산업 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수립
 - 또한 울산시는 △관광, △유통·물류, △물류연계 금융서비스, △에너지, △교육, △보건·의료, △IT, △바이오, △바이오메디컬의 9개 산업을 자체 선정사업으로 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

< 경제유관기관 >

9.30(화) ▷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-울산과학기술대학교, 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산학 매칭페어 개최

○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 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30일 UNIST 경동홀에서 이태성 경제부시장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'중소·중견기업을 위한 산학 Matching Fair'를 개최

— R&D 전담인력과 기획력, 공동연구 파트너 확보가 필요한 성장 유망기업과 산업현장 적응력이 요구되는 대학 간의 우수 인력 매칭을 통해 상호 Win-Win 할 수 있는 산학융합의 장을 마련

< 산업체 및 기술개발 동향 >

9.30(화) ▷ 국립산림과학원 - 울산과학기술대학교, 세계 최초 '휘어지는 종이 배터리' 원천기술 개발

○ 국립산림과학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로 제조한 나노종이 분리막과 전극을 이용해 종이처럼 휘어지는 배터리(플렉시블 종이 리튬이온전지)를 만드는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

— 앞으로 나노셀룰로오스로 만든 전극과 분리막을 일체화시킨 3차원 구조의 플렉시블 종이 배터리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공동 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